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 대심방: 2012년 대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금주 심방일정: 화(14일): 훈련 - 심창진 목사
목(16일): 바누아투 - 김경수, 정진택 집사. 정덕수, 현석호 장로.
금(17일): 이집트 - 김현주, 차영철 집사.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 도움: JP 사인이 필요한 성도는 남영수(변호사) 집사에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 모임: 바자회 위한 준비 모임이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 ◎ 월례회: 2남(65-59년생) 선교회, 3여(60-53년생) 선교회 월례회가 유아실, 아동부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8월 새벽 기도회 본문

- 3일: 누가복음 9:18-27 신앙고백과 십자가를 향한 순종 10일: 누가복음 11:1-13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7일: 누가복음 12:35-48 깨어있는 신실한 종은 복됩니다 24일: 누가복음 14:25-35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31일: 누가복음 17:22-37 데려감과 버려둠으로 구분되는 그날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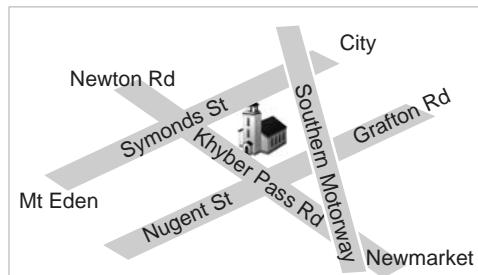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2년 8월 12일

14권 33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책동무 - 이경자 권사

나에게는 몇 명의 책동무들이 있다. 서로 책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들에게 내가 붙인 이름이다. 뭐 그렇게 대단한 모임도 아니기에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아는 동무도 있고 모르는 이도 있다. 이나라에 살다 보니 우리 글로 쓰여 있는 책들이 귀하기도 하고 남편의 건강이 여의치 않아 바깥나들이의 운신 폭이 좁아진 나는 읽을 수 있는 책이 주어지면 폭식하듯 책에 빠지게 된다. 때로 몇 사람 건너건너 와서 급하게 지나가는 책은 늦은 밤까지 읽기도 하고, 가로등이 제풀에 꺼지고 큰길에 차 지나가는 소리가 바빠지기 시작할 때까지 책을 보기도 한다. 푸릇한 신 새벽 동그마니 앉아 연인들의 이별에 가슴 먹먹해하고, 때론 어항 속의 물고기를 들여다보듯 객관적이 되는 때도 있지만, 불치병이나 육체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내용을 접할 때는 남편 때문일까, 글줄이 물결치듯 번져 보이기도 한다. 잠은 좀 모자라지만 아침 일찍 학교 갈 아이가 없으니 도시락 쌀 걱정도 없고 출근할 것도 아니니 짧은 낮잠으로 낮에 조절하면 큰 지장은 없다. 다른 동무들은 자기 일에, 아니면 아이들 뒷바라지 때문에 바쁘다. 그러다 보니 제일 나이 많은 내가 책의 오고 감을 탁상용 달력에 써서 기억하면서 사서 아닌 사서 노릇을 하게 됐다.

몇 주 전 주일 예배 후 교제실에서 빌렸던 책을 돌려주는데 J 집사 “저는 못 가져왔어요. 다 못 읽어서.” 급할 것도 없고 아무래도 할 일 없는(?) 나보단 회수가 더디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그 뒷말이 나를 잡는다. “고난주간이라서…” 순간 숨이 멎추는 듯 얼굴이 활활하면서 머릿속 어딘가에서 묶였던 매듭이 툭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날달같이 도르르 굴러떨어져 꽉 터지는 그런 느낌? 다음 순간 내가 J 집사에게 어떤 책을 돌렸었나, 나는 과연 고난주간을 염두에 두고 지내기는 했었는가? 급하게 머릿속을 뒤적였다.

얼마 전 새롭게 개편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다. 전에보던 성경책도 아직 시루떡인데… 여기서 시루떡이라 함은 모든 책은 모름지기 손때가 묻고 갈피를 넘길 때 화르르 한 장씩 넘어가야 하며, 헐면 헐수록 책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면서도, (안에서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06:47-48
개회송	인도자
참회의 기도	찬양대
※ 찬송	다함께
※ 성시교독	다함께
※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다함께
대표기도	박덕철 집사
성경봉독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복음의 핵심
찬송	이태한 목사
헌금기도	다함께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인도자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심창진 목사
기도 / 김광영 집사
성경봉독 / 뉴 11:29-32
설교 / 더 큰 이 / 심창진 목사
찬송 / 비전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손조훈 집사
성경 / 삿 11:32-40
설교 / 입다의 애통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45장
주기도 / 다함께

건축헌금 지난주: \$ 110.00
총계: \$ 613,603.19

◎ 8월 교회일지

공동체 주관 수요예배:
8월 29일 (수)

◎ 8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김광자/심경순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김은희 집사
다음 주일 1부: 박병민 집사
다음 주일 2부: 박수현 집사
8월 22일 수요기도: 심경순 집사
8월 22일 애찬기도: 김은희 집사
8월 26일 1부: 이동술 집사
8월 26일 2부: 박소망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국내

경기회복으로 대학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많이 열리도록.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교만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민자들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한인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2. 교회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가 더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도록. 어떤 일보다 예배를 먼저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끼리 깊히 나누도록. 비자, 경제, 질병 문제 등 어려움들이 주안에서 해결되고 회복 되도록. 성전 건축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3. 해외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성숙한 자세로 축제가 되는 선거를 하도록. 가지고 있는 부를 사치와 향락으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나누는 나라는 되도록. 학교 성적에 비관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또한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물러가도록.

(앞장에서 시작됩니다)

아직도 갈피가 뭉텅뭉텅 시루며 떨어지듯 한다는 말이다. 전에 어느 목사님, 무릇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자기 나이 수만큼은 읽어야 된다고 설교하시던데 내 수명을 팔십으로 친다면 남은 여생 동안 일 년에 4-5독은 해야만 나 스스로 성경통독의 나잇값을 하는 셈이다. 사람이 지은 애기에 잠을 설치고 희뿌연 새벽을 맞기도 하면서 태초부터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시고, 나로 인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즐겨 찾지 않는 나 한 뼘의 얼굴이 둘 곳을 못 찾는다.

하지만 나는 기도한다. 면 훗날, 설핏 기우는 저녁노을에 창살 그림자 거실바닥에 내려앉을 때 빛깔 고운 무릎담요조차도 버거워 보이는 하얀 서리 머리 에인 작은 노인이 있다. 콧등에 걸쳐진 돋보기 아래 조글조글 주름 많고 작아진 손으로 받쳐 든 성경책. 금빛 갈피도 많아 퇴색되고, 화르르 넘어가는 장장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밀줄이 보이고 가끔은 회한과 감사의 눈물로 얼룩진 낡은 성경책을 받쳐 든… 그 노인이 나이기를… 붉은 노을이 창살 그림자조차 거두어 안고 서산으로 넘어간다. 살포시 잠들어 안고 있던 성경책 떨어지는 소리에 무릎담요 끝에 코 박고 잠들었던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게으르게 눈며 올려다보고는 무심히 돌아눕는다. 깜빡 잠이어도, 아니 영원한 잠이어도 좋겠다. 그 노인이 나이기를…